

“입시학원화 사실과 달라”

‘성적조작 의혹’ 고려고, 감사결과 반박 기자회견 “광주교육청, 조작·비리 관련 증거 제시해야”

부정한 학사운영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 고려고등학교가 자신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광주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반박했다.

분형수 고려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2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문제 출제 논란과 학교 운영의 많은 부족함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잘하지 못한 부분과 실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 시정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발단이 된 학생의 SNS 주장에 대해 그 학생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도 않는다”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학생과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의 부족함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고 측은 광주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형수 교장은 “고려고는 시교육청이 시험 기간에 감사를 시작하고 수업 시간에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항의하는 과정을 ‘갑갑’이라고 말해도, 셀프 감사를 하라고 해서 교사들이 힘들어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13일 광주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서 오만한 교육권력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희는 결론코 고발과 파면 해임, 교사 80%가 징계를 받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검박과 조작된 감사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사과와 시정을 해야한다”며 “시교육청이 고려고를 잡고싶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감사발표 당시 기자에게 허위 사실과 증거를 제공해 조작적으로 성적 조작과 비리를 저지른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학사 및 교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만으로 교사 80%를 징계하는 등 감사의 출발과 종착지가 다른 모순을 드러냈다”며 “고려고 일당은 시교육청의 이러한 이중성과 불순한 의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조작이나 비리 등과 관련한 교육청 측의 증거 제시를 주장

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의혹이 아닌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며 “광주교육청은 성적조작과 비리 등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도된 문제 유출이 아닌 실수라도 잘못은 했지만 청탁이나 고의성, 불순한 의도로 특정 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며 “학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시험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고가 광주교육청의 지침을 일부 위반한 점은 있지만 이른

바 ‘입시학원화’ 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보고, 고려고만의 문제인지, 무엇이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고려고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평하고 합당한 마무리로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다”고 당부했다.



놀이기구 안전 꼼꼼하게 22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달서구청 공무원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감사 해석은 고려고 입장에서 한 것일뿐”

“시험문제 유출로 교육과정을 지적한 것” 반박

학사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고려고등학교가 감사결과에 대해 부당함을 표명한 가운데 광주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로 교육과정 운영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광주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분형수 고려고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분석에 대한 해석을 고려고 입장에서 한 것일뿐 객관적으로 맞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고려고 입장에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해석을 고려고 입장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객관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해석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 감사는 문제 유출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에 조작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며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 유출

을 근거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지적했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수업 부분에 있어서 국·영·수 합산해서 받을 편식했다고 판단했다”며 “우열반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열반은 상위권을 만들어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 학생들로만 받을 구성된 것이 우열반이다”며 “고려고는 우열반 운영하는 것을 자신들도 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답안지 문제에 대해 “같은 답인데 일부 학생만 올려주고, 다른 학생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처음 출제할 때부터 주관식 기준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

한국 찾는 일본인도 4개월 연속 감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 관광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입국자 수는 27만4830명이다.

지난 3월 37만51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29만92명, 5월 28만

6273명, 6월 28만2476명으로 4개월 연속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7월 23만512명보다는 19.2%(4만4318명) 늘었지만, 올해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관광객 입국자 수도 144만8067명으로 6월 147만6218명보다 2만8151명 줄었다.

뉴스1

광양 내리막길서 청소차 전복 4명 부상

22일 오전 9시57분쯤 광양시 사곡면 죽림리 영세공원 입구 37리 내리막길에서 중마동에서 광양 방향으로 가던 청소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명은 순천성가톨릭로병원으로 나머지 2명은 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빈 교실서 돈 훔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빈 교실에서 동료 강사들의 돈을 훔쳐 온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절도 혐의의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50분 광주 한 초등학교 방과후 전담실에서 책상에 놓인 동료 강사 B씨(38)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빼가는 등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갑을 보자 욕심이 생겼다”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우 기자

공사장 지게차에 깔려 50대 남성 숨져

22일 오전 10시30분쯤 강원 속초시 사조마을 설악사조리조트 입구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지게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9)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자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 지게차가 전도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외국인 트랜스젠더 협박·강간 20대 구속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트랜스젠더에게 금품 편취를 시도하다가 여의지 않자 강간한 뒤 20대를 경찰이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서초구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도강간)로 20대 A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외국인 B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만난 뒤 돈을 요구했으나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강제로 밀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날 처음으로 실제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입국 당시 목적을 관광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료적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이 됐으나 여권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B씨와 호텔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에 단속 정보 제공 경찰관 ‘파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8)를 파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38)에 대해 징계 순위 중 가장 높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A경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성 금품 4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원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A경사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포섭단속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